

홈 > 뉴스 > 기획 > 제주 근대 유산의 길을 걷다

## 미카3형 증기기관차 전국 4대 있어

대전현충원 기관차, 철도인 송고한 애국·희생정신 상징

데스크승인 2013.03.24 좌동철 기자 | roots@jejunews.com



미카3형 증기기관차는 제주를 비롯해 전국에 4대가 남아 있다. 국립대전현충원에 있는 '미카3형 129호'는 전쟁 유물이자 철도인의 송고한 애국·희생을 상징하는 기념물로 등록문화재에 지정됐다.

전쟁 당시 징발된 이 기차는 1950년 7월 20일 북한군이 점령한 대전에서 소식이 두절된 미 육군 24사단장 윌리엄 F 딘 소장을 구출하기 위해 적진으로 돌진했다.

김재현 기관사는 온몸에 8발의 총알을 맞고 최후를 맞았고, 현재영·황남호 두 기관조사도 극심한 부상을 입었다. 기차에 탄 국군 특공대원들도 대다수가 전사했다.

지난해 미 정부는 순직한 김재현 기관사의 공로를 인정, 사후 62년 만에 민간인 최고 훈장인 '특별공로훈장'을 수여했다.

'미카3형 244호'는 남북이 갈라 선 후 분단의 아픔을 보여주는 철도 종단점인 임진강 평화누리공원에서 들어섰다. 경의선 철도를 상징하는 '철마는 달리고 싶다'로 널리 알려진 기차다.

또 '미카3형 161호'는 철도박물관 옥외 전시장에 들어서 있다.

한편 1919년 미국에서 미카1형과 미카 2형 등 각각 12량을 수입해 경의선에 투입한 이후 1927년부터 경성공장에서 한국형인 미카3형을 생산해 주로 화물열차로 썼다. 1950년대에 미카5형도 등장했다.

이어 중국의 SY11형 증기기관차를 수입해 미카6형으로 이름 붙였고, 일본의 D51형 기차는 일부를 개조해 미카7형으로 명명했다.

© 제주신보(<http://www.jeju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